

## 천주교 청전동교회 Cheongjeon-dong Catholic Church

김지호 / K.P.C 건축사사무소  
by Kim Jee-Ho

제천 청전동 성당은 지명현상 형식으로 치루어진 작품으로 건축문화(김영섭)와 K.P.C의 공동응모작이다.

지역성의 문제와 종교건축이 가져야 하는 관습적 보편성과 대지의 특수성을 극복하여 하나의 구체적안으로 만드는 작업은 쉽지않은 과정을 필요로 하였다.

제천 청전동 성당의 기본적인 조건과 과정을 서술해 보고자 한다.

### 대지

지형(Topography)  
남서쪽으로 경사진 약 1,232평의 대지로 제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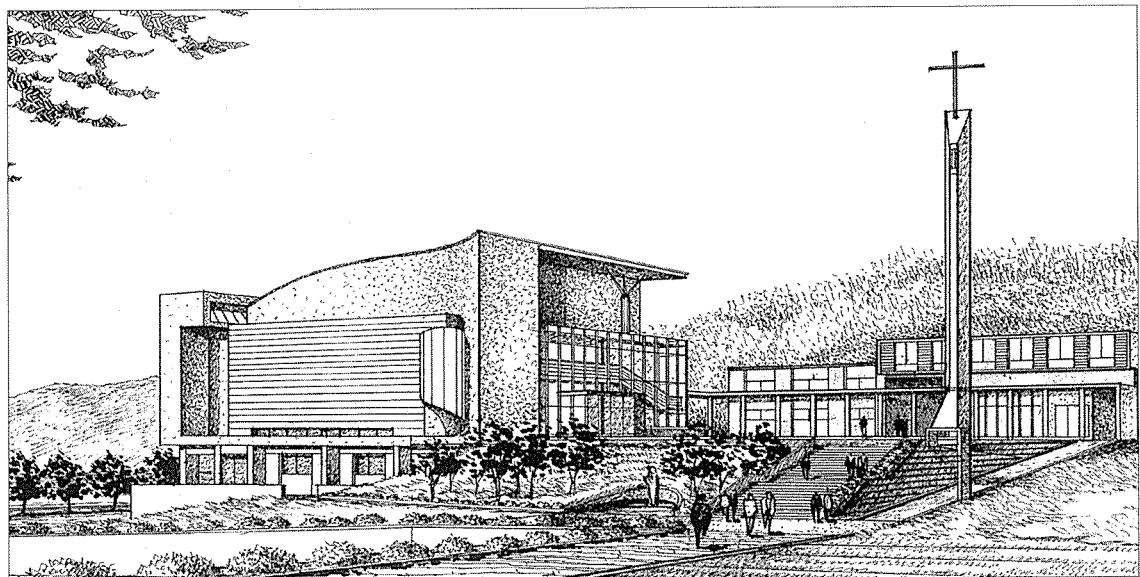
내와 의림지로 통하는 도로의 한편에 위치하고 있다.

'대지위에 선 것'이 아닌 '대지와 함께 하는 건물'을 만드는 것'이 설계의도이다.

현재 대지는 부지의 입체적 형상을 따라 다양한 레벨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내 남측의 굴곡되어진 계단 통로가 각기 다른 레벨의 공간들을 이어주며 자연스러운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 주변환경-문맥

남측과 동측으로 아파트 주거군들과 만나고 서측으로는 제천시내로 통하는 차량도로가 지나며 자연으로 트인 시야를 가지고 있다. 대지의 북측은 낮은 야산이다.



## 배치

### 세 개의 레벨

건물 전체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의도적 도출이 아닌 대지의 기본적인 특성에 따른다. 현재 부지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굴토에 소요되는 토공량을 감안하여 등고선에 의한 세 개의 레벨(+112m+108m+104m)을 구성한다. 외부에서 자연에 순응하여 펼쳐진 세 개의 레벨은 부지 북측중앙에서 겹쳐져 성당 내부의 바닥판을 구성함으로써 각기 다른 세 개의 기능-대성전, 교리프로그램, 대강당-이 그 각각의 활동적인 외부공간과 독립된 진입을 가지면서도 내부의 수직동선을 통해 긴밀히 연결된다.

### 대지의 북측부

15층 아파트에 가려진 대지의 남측부와 달리 북측부는 하루중 대부분의 시간동안 태양이 비추고 있다. 성당과 유치원을 위한 활동적인 공간으로 마련된 두 개의 마당은 부지의 북측부에 동서측으로 위치하여 남쪽에서 떨어지는 빛을 받아 그 조형적 형태는 더욱 극적으로 되고 기능이 증진된다.

### 단계적 계획

대지 총면적 1,232평중 216평이 점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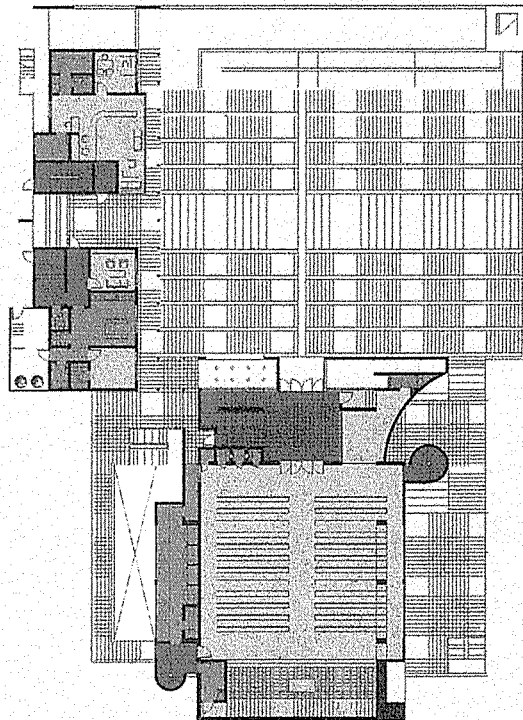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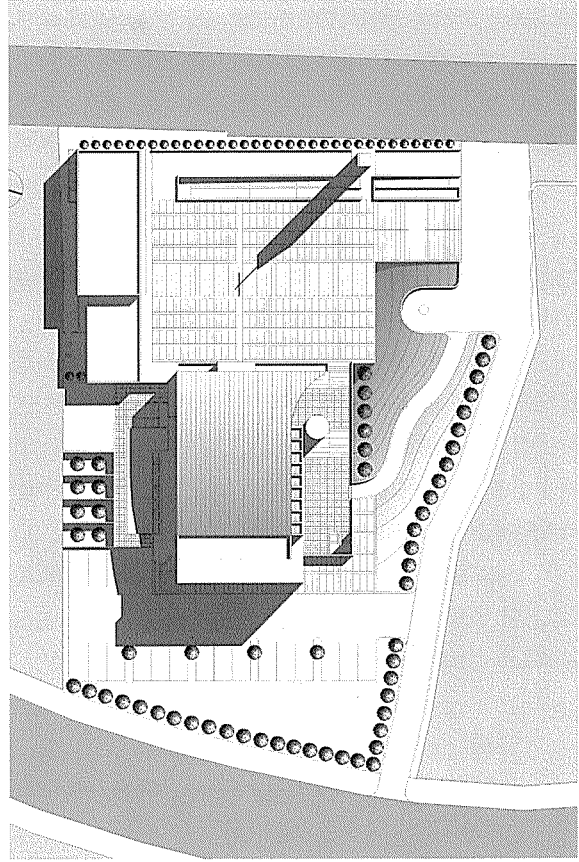
현재의 본당으로 쓰이고 있는 가설 건물은 이 계획안의 성당이 부지내 북측에 건설되는 동안 계속해서 미사의 장소로 이용된다. 성당이 지어진 후에 이 건물의 철거로 인해 생기는 여유는 대지를 동서로 이어주는 계단통로와 함께 랜드스케이프화 되며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는 여백이 된다.

향후 시행될 예정인 유치원 시설은 본 계획안 건물의 서측(레벨+104m)에 계획함으로써 성당과 그 부속시설이 갖고 있는 위계질서를 반영하며 학예회 등의 행사때 성당하부의 대강당과 교육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

### 대지로의 진입

서측의 25m도로와 동측의 10m도로가 대지에 접하고 있다. 서측의 도로는 제천시 시내와 의림지를 잇는 도로로서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차량으로 지나가며 대지에 세워질 성당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반면 지목상 소방도로로서 장애 확장이 예정된 동측의 도로는 일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며, 지역사회와 그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성당, 그리고 자연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서측의 도로는 차량의 진입로로 이용가능하지만 차량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다니는 도로로써 진입시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성당 이용자 차량은 주로 동측의 도로로 진입



한다. 또한 가까운 곳에서부터 도보로 성당을 이용하게 되는 이용객들 역시 동측의 보행자 도로를 통해 진입한다.

## 진입

### 종탑/계단

먼거리의 주택가에서도 인지될 수 있는 종탑을 보며 동쪽의 주진입도로로 진입한다.

출입구 진입과정의 첫 단계로써 명동성당의 사로 진입을 상기시키는 계단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현재의 자연경관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성당으로의 진입이 하나의 시나리오에 의한 일련의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다. 계단 옆의 둔덕에 성모상이 있다.

성모상은 성당 옆면의 곡선벽이 배경이 되어 의미가 강조된다. 계단은 또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계획되었다.

### 마당

성당의 진입레벨(레벨+112m)에 도달하면 사제관/수녀원과 성당의 정면으로 둘러 싸인 빈공간을 마주하게 되며 이 둘러싸임은 북측의 자연으로 열리고 닫히면서 마치 천상공원(Garden of Heaven)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줄 것이다.

광장은 단순히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동선의 연결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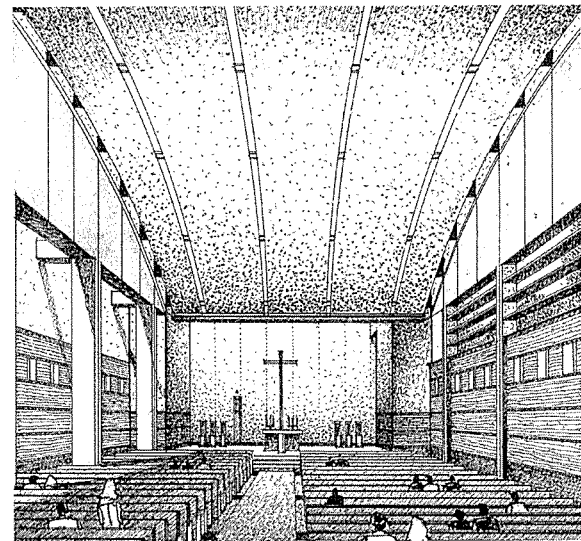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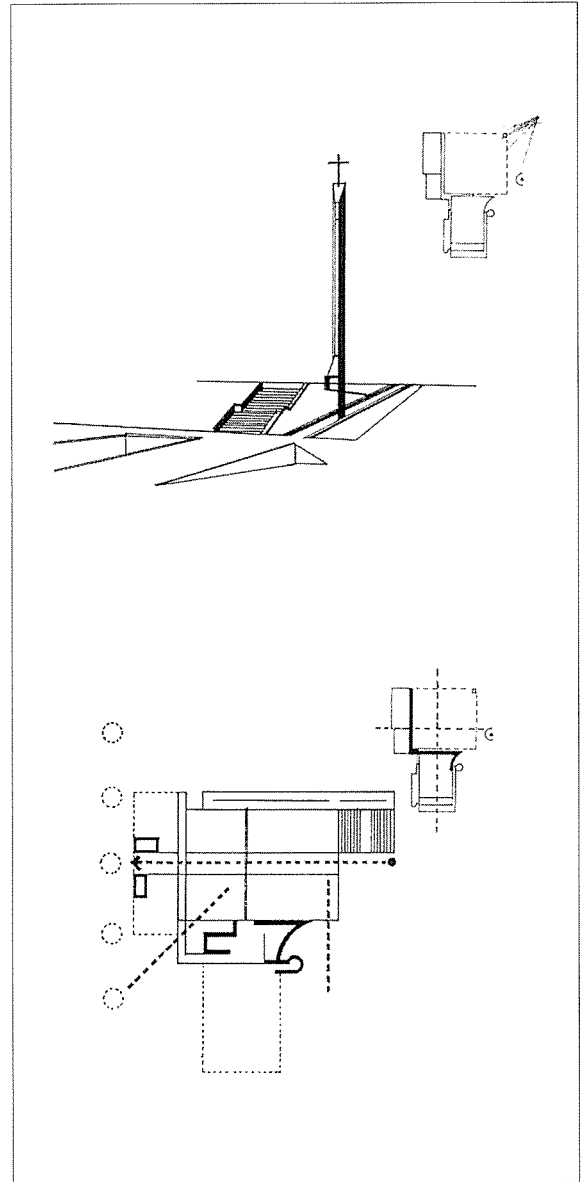
이러한 연결성은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의 가능성을 확장시킨다. 성모상과 사제관/수녀원 출입구 홀을 잇는 축과 성당의 축에 의해 방향성을 갖는 마당은 성당 옆 외부계단 통로를 통해 교육시설, 장래 유치원 등과 연결되며 성당, 사제관/수녀원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 성당진입-회중석-제단

광장에서 시작되어 그 광장의 건물내부로의 연장인 출입구홀에서 회중석, 제단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공간은 연속되는 축에 의해 일관성을 가지지만 반대로 점진적 또는 급격한 공간의 질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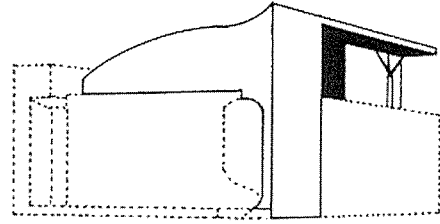
광장과 출입구홀사이의 관계에서는 외부와 내부 사이에 생기는 긴장이 건물표피의 투명성, 공간의 상호관입으로 인해 극대화되지만, 이들 두 공간은 회중석과 제단에 대비되는 동적인 공간으로서의 연속성을 가진다.

회중석에 들어서면 초월적인 스케일을 가진 공간에 의해 또다른 공간을 경험하게 되며, 이 회중석의 천정/지붕은 제단쪽으로 숙여지는 곡면으로써 제단을 향하는 공간의 방향성을 주게 되며 제단벽을 타고 내려올 갑작스러운 자연광 유입으로 인해 제단은 일련의 진입과정의 절정이 된다.



### 요소들(El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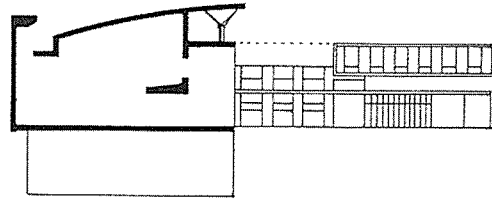
이와함께 주로 다음의 4가지 요소들이 어우러져 성당 전체의 장소성에 공헌한다. 첫째 성당 남측의 곡선벽, 둘째 성당의 주출입이 이뤄지는 광장과 면한 아트리움, 셋째 성당을 덮는 지붕/처마, 넷째 외부의 중심공간이 되는 레벨+112m의 마당 등이다.



### 곡선벽(빛나는 형태)

형태는 빛을 받아 그 존재가 명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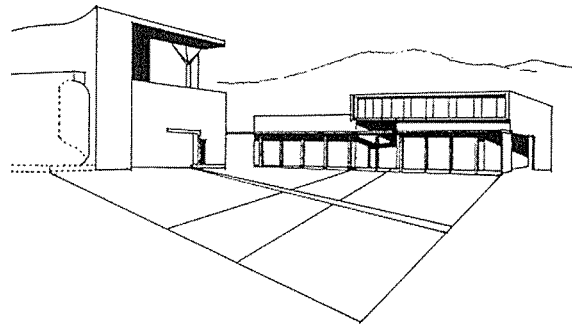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서측의 조망으로 유도하게 될 성당 남측면은 태양빛을 받아 밝게 빛난다. 이 벽은 또한 입구계단에서 보이는 성모상의 배경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 입구 아트리움(공간의 겹, 중첩)

성당의 입구가 되는 동측면은 밝게 열려 있다. 빛이 등 뒤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아트리움이 입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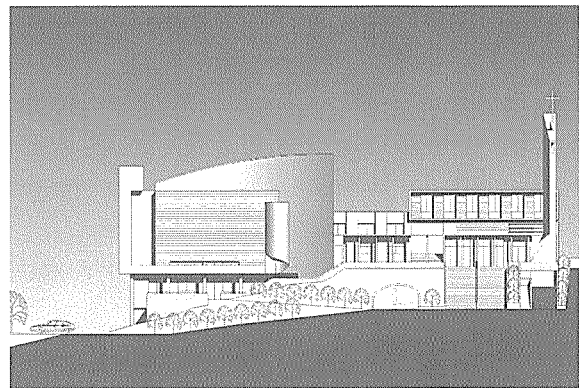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얻어진 형태는 물질과 공간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공간적인 긴장감을 유발시키며, 빛의 대비를 느끼게 된다. 건물의 횡단면이 보여주는 변화는 세로 방향의 겹들의 구성을 반복한 것이다. 이러한 겹의 중첩에 의해 출입구가 생성되며, 또한 구성되는 각 공간간의 수직 이동 체계를 포함한다.



### 지붕/처마(Sky Line)

지붕면은 건물이 하늘과 만나는 곳이다.

성당전체를 덮는 곡선의 지붕면은 아트리움으로 된 입구홀 위를 지나 처마를 이룬다. 시각적으로 처마는 정지하지 않고 더 뻗어나갈 듯이 보이게 되는데, 이 뻗어나오는 면은 실재하지는 않지만 성당 앞마당 위에 보이지 않는 '지붕'을 형성하여 마당을 '외부의 방'으로 만들어 주는 또하나의 요소가 마당의 '벽'을 이루는 성당/사제관/수녀원과 함께 된다.



### 마당(외부의 방)

입구홀은 외부공간과 비슷하게 착안되었으며, 전체 계획과 이 성당내부에서의 하늘 및 땅과의 관계를 제시하는 근거가 된다.

빛, 볼륨, 스케일 및 증진에 대한 건축언어를 개발함으로써 다른 부분은 성당의 기본 주제를 재해석해 준다.마당을 둘러 싸는 성당, 사제관의 매스(Mass)와 함께 이 성당의 서측 곡선벽과 지붕처마의 수평면은 확장하면서 외부마당은 외부의 '방'으로써 공간감이 극대화 된다.

둘러싸여진 마당에서 이러한 자연과의 교감을 경험함으로써 개인의 내부의 주관적인 경험과 외부 세계의 객관적인 경험사이의 차이를 좁혀 나갈 수도 있다.

